

영암 신북초, '호산골 예술제' 개최

학교교육활동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으로 예술제 참여 전교생 대상, 총 19개 공연으로 다채로운 무대 선보여



영암 신북초등학교는 지난 17일에 신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2023. 호산골 예술제'를 개최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그동안 학교교육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으로 예술제에 참여했다. 병설 유치원 막내들의 귀여운 댄스와 발레 공연, 1학년 학생들의 매력 넘치는 댄스, 2학년 학생들의 연극, 3학년 학생들의 모듬북, 4학년 학생들의 개성

있는 댄스, 5학년 학생들의 밴드 공연, 6학년 학생들의 연극, 방과후프로그램 공연, 돌림프로그램 공연, 학부모회 대표공연 등 총 19개의 공연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호산골 예술제는 학생회가 주관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된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학생회에서 학예회 문구를 공모하여 현수막을 제작하고, 포토존을 꾸미

며, 팸플릿과 영상을 만들고, 당일 학예회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또, 마음건강 동아리부에서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수제 수세미 마켓을 열고, 학부모회의 대표공연과 간식 제공으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특별히 신북중학교 '신북뮤즈 윈드오케스트라'의 찬조 공연과 지역 유관기관에서 축하 인사를 보내와 신북의 지역민이 함께 하는 멋진 날이 되었다. 6학년 000학생은 "학생회가 주관하여 예술제를 준비하느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 활동 모습을 잘 보여드린 것 같아 아주 뿌듯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호산골 예술제가 끝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공개의 날'을 실시했다. 학교 급식의 배식 과정 참관과 시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급식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000학부모는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점심 식사를 잘 부탁드린다."며 설문지에 답하였다. 박현주 교장은 "이번 호산골 예술제를 통해 아이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꿈과 끼를 학부모님들 앞에서 멋지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기쁘다. 또한 신북초의 행사가 이 지역을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광양여중, '뒤뜰 문화 프로젝트' 완성

광양여자중학교는 후문 골목길과 학교 뒤뜰의 삭막한 공간이 학생들에 의해 문화가 숨쉬는 거리로 탈바꿈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20일, 광양여중 교정 뒷편 '끼룩끼룩' 야외 버스킹 무대에서는 학생자치회 임원과 미술부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자신들 손으로 완성한 '뒤뜰 문화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는 파티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해 광양여중 후문 일대에서 추진한 뒷골목 안심벽화거리 조성의 후속사업으로, 올해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뒤뜰 버스킹 무대를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이 학교 졸업생 이은미 작가(광양여중 14회 졸업생)는 재능기부를 통해 버스킹 공간 바닥과 뒷벽의 벽화작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삭막하게 방치된 뒤뜰을 문화가 살아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한 것이다. 지난 해 뒷골목 벽화거리 이어 이번 작업까지 모두 '꿈과 끼'를 테마로 학생들이 구상한 작품을 제작해 마무리했다.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시작된 '끼룩끼룩' 야

외무대는 광양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공사가 시작돼 조명과 음향 시설까지 완비한 후 이달 초 개장했다. 몇 해 전까지 인공연못이었던 이곳 부지는 매립 후 수년간 콘크리트 상태로 방치된 곳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근사한 버스킹 공간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이에 앞서 광양여중은 지난해 6월, 광양시, 포스코ICT 등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였던 후문 일대 골목길을 안심조명등과 학생 벽화작품 등이 설치된 '안심 귀갓길로 탈바꿈시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광양여중은 안심 귀갓길 조성 후, 학교 후문 양측에 상상화 벽화와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문화가 있는 테마거리를 가꾸어, 이곳을 지나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추진한 후문 문화거리 조성 작업을 교내로 연장한 것으로서, 학교측은 문화친화적인 공간들이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신장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화순북면중, 비와 함께한 '찾아가는 오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개최

화순북면중학교에서는 "찾아가는 오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열렸다. 화순군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음악협회 화순군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문화시설이 열악한 도서벽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직접 출연자가 설명하고 관련 영상을 보여 주면서 공연을 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오페라 뮤지컬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 깊었다. 조OO 학생은 "방송 매체에서 OST로 많이 들어 보았지만 어떤 음악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다 같이 부르면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문화 감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런 문화공연이 있을 때는 참석할 수 있는 지역민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순=박순철기자

화순군에서 주최, (사)한국음악협회 화순군지부 주관



나주 빛누리초, '빛누리 교육 한마당'

나주 빛누리초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빛누리 교육 한마당'을 운영하였다. 학년 교육과정 및 특색 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습 나눔의 장 '빛누리 교육 한마당'을 계획하였다. 1학년은 지난 17일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우천으로 인하여 강당 및 교실로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큰 공 굴리기, 색판 뒤집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풍주머니 넣기, 캐치컵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이 실시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신나게 미니 운동회를 즐기는 아이들은 실 새 없이 웃음꽃이 터졌다. 승패가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팀을 응원하고 힘을 모으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지난 14일6학년은 나만의 세계 테마 발표를 준비하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모두를 배우는 마음 여행'을 운영하였다.



지난 15일 4학년은 가족과 함께하는 학급 발표회를 준비하여 칼림바 및 리코더 연주를 하고 개인별 다양한 꿈과 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2학년은 부모님 앞에서 꿈·끼 발표회를 준비하여 보여주고 칭찬 메달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학년은 22일 학예회를 통해 리코더 기악 합주 및 합창 등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5학년은 23일 역사·상식 퀴즈를 모두 함께 해결하고 누가누가 더 높은지 함께 만들기 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